

고려의료복지복합체



전국 요양병원 최초
고려대연요양병원 브랜드 대상 수상



(2023.03.01~2025.02.28)
헬스조선
좋은 요양병원 선정



(2024.10.19~2028.10.18)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



국가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고려소식지



2026 Summer VOL.41

고려대연요양병원
홈페이지

국가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보훈의료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국가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관련기사 6면



재활·항암·투석·요양
고려대연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프리미엄 요양원
고려시니어케어
GORYO SENIOR CARE DALJEON TOWN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189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



대형 주간보호센터
고려데이케어센터
GORYO DAYCARE CENTER DUHO CENTER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127 2층
대표전화 054 - 246 - 3033
홈페이지 www.goryodcc.com

환자중심(Patient-Centered)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센터·요양원·요양병원이 연계된 의료복지복합체



낮 동안의 돌봄

대형 주간보호센터

100여 명의 어르신과 함께
여러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낮시간에 운영되는
주간보호센터
(Daycare Center)

☎ 054-246-3033

 **고려데이케어센터**
GORYO DAYCARE CENTER DUHO CENTER



맞춤형 돌봄서비스

프리미엄 요양원

자연과 함께 숨쉬는
100인실 규모의
프리미엄 돌봄(Care)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Nursing Home)

☎ 054-262-2022

 **고려시니어케어**
GORYO SENIOR CARE DALJEON TOWN
달전타운



재활·항암·투석·요양

치료하는 요양병원

환자분을 최우선
(Patient-First)으로 생각하는
300병상 규모의 환자 중심
요양병원
(Long-Term Care Hospital)

☎ 054-241-1011

 **고려대려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포항 지역에서 어르신과 환우들이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의료와 복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료복지복합체'입니다.

요양병원, 프리미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복지 복합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려요양병원 고려소식지는 고려대려요양병원,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 고객에게 드리는 다양한 의료정보와 환우들의 병원소식을 전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려소식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 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제2017-41호

발 행 인 | 박영희

편 집 | 전략실

발 행 처 | 의료법인 호준의료재단 고려대련요양병원

대표전화 | 054) 241-1011

주 소 | 3765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홈페이지 | <http://www.goryomcc.com>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goryomcc>

의료

의학칼럼 혈액투석의 이해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	04
위탁의료기관 지정 국가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06
의료정보 손닥터의 투석실 이야기(일곱 번째)	08
암 식이 노인 암환자를 위한 요리	10
삶에 정보를 더하다 인공지능(AI)과 우리의 삶	12

고려시니어케어 달진타운

NEWS '뽕! 소리에 웃음꽃 피는 날'	14
한봉우리 봉사단 방문	
달전지역아동센터 연주팀 방문	
어버이날 기념 행사	16

고려데이케어센터 두호센터

NEWS 어버이날 축제	18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송도솔밭 나들이/북구보건소 방문 교육	20
재활치료 서비스 '슬링(Sling)'운동 소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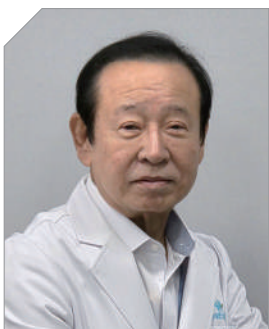
간병수기 삶은 사랑이더라, 나의 하늘 나의 당신에게	22
어버이날 특집 '첫번째' 족석 가족사진 촬영	24
'두번째' 트로트 봉사단 병실 방문	
'세번째' 사랑과 감동의 라디오 생방송	25

병원소식

기타 병원소식 나눔 의료봉사/신규직원 교육	26
행복 빵 나눔	
친절직원 소개	28
신규직원 소개	29
진료부 소개	30
요양병원 입원대상 안내	31
외래진료 시간	32

침묵의 장기 신장을 지키는 법

‘혈액투석의 이해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이드’



고려대연양병원

강 홍 일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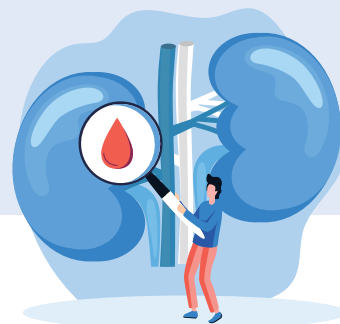
진료분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
고혈압, 노인성 질환

신장(콩팥)은 우리 몸의 '고성능 정수기'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수분·전해질 균형과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뒤늦게 자각했을 때는 이미 만성 신부전증이 진행되어 삶에 큰 변화를 동반하는 '혈액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투석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혈액투석의 필요성, 예방 관리법, 투석 시작 후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혈액투석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되어 정상치의 1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기 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신장이 스스로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요독증'이 발생합니다.

요독증은 심각한 피로감, 구토, 호흡곤란, 전신 부종을 유발하며, 방치할 경우 심장마비나 의식 저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혈액투석(Hemodialysis)은 기능을 상실한 신장을 대신해 기계적으로 혈액을 정화하는 치료법입니다.

원리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 투석기(인공신장기) 필터로 요독 물질과 과다 수분을 걸러낸 뒤,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냅니다.

방법 보통 일주일에 3회, 매회 4시간 정도 치료합니다. 투석은 단순한 병원 체류가 아니라 독소를 비우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필수 과정입니다.

2. 어떤 사람들이 혈액투석을 받게 될까?

투석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만성 질환의 합병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대사 질환이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투석 환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오랜 기간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높은 당분이 신장의 미세 필터 혈관(사구체)을 망가뜨려 여과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신장 내부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면서 신장 조직이 점차 굳어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성 사구체신염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면역 체계의 이상 등으로 발생하며 서서히 신장을 파괴합니다.

기타 원인 다낭성 신장질환(신장에 물혹이 생기는 유전 질환), 반복적인 신우신염, 요로폐색(결석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석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 예방 수칙

신장 기능은 한번 손상되면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석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선의 치료는 '철저한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기저 질환(당뇨, 고혈압)의 철저한 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당과 혈압을 목표치 이내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되며,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식습관(저염식)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고, 젓갈, 장아찌, 찌개류의 섭취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신장 독성 약물 주의 관절염 약,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일부 항생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즈 종류, 건강보조 식품 등은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신장 이상 유무는 간단한 혈액 검사(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여과율 확인)와 소변 검사(단백뇨 확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와 체중 관리 비만은 신장의 과여과를 유발해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되,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4. 투석 환자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슬기로운 생활 관리법

이미 투석을 시작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투석은 삶의 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입니다. 다만, 신장의 역할을 기계가 간헐적으로 대신하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의 철저한 일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엄격한 식단 관리 (칼륨과 인 주의) 투석 환자에게 식단은 치료의 연장선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체내에 쌓이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칼륨 제한 칼륨이 몸에 쌓이면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심장이 멎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참외, 키위, 고구마 등 칼륨이 풍부한 과채류는 피해야 합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잘게 썰어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낸 뒤 섭취해야 합니다.

인 제한 인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가 극심하게 가렵고, 뼈가 약해져 부러지기 쉬우며,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유제품, 견과류, 청량음료, 잡곡밥 등은 인이 많으므로 가급적 백미밥을 섭취하고, 처방받은 인 결합제는 식사 중에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수분 및 나트륨 제한 소변량이 줄어든 투석 환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급격히 늘고 폐에 물이 차거나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 허용량(보통 전날 소변량 + 500ml 내외)을 반드시 지키고, 짠 음식을 피하여 갈증 자체를 예방해야 합니다.

② 투석 혈관(동정맥루)의 '생명줄' 관리 혈액투석을 위해 만든 동정맥루는 환자의 '생명줄'이므로 막히거나 감염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시로 손을 대어 특유의 떨림(진동)을 확인하고, 진동이 없거나 소리가 가늘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투석하는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혈압 측정·채혈을 해서는 안 되며, 팔베개나 시계, 꽉 끼는 옷 등으로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가벼운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투석은 체력 소모와 제약이 커 우울감을 동반하기 쉽지만, 누워만 있으면 근육 손실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투석하지 않는 날에 걷기, 실내 자전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주 3~4회 꾸준히 하면 체력 유지와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며, 보호자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④ 투석환자와 흡연 흡연 시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 뇌혈관계, 심혈관계의 혈관 합병증으로 뇌경색, 심근경색, 심장마비 위험의 증가로 금연을 권유합니다.

⑤ 투석환자의 음주 알코올은 혈압상승, 맥박상승, 혈당상승을 일으키며, 몸의 탈수현상으로 신장혈류량 감소로 신장손상을 일으키며, 약물과다 상호 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며 간 질환,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신장은 미리 관리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투석 중이더라도 투석은 삶의 제약이 아니라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 공식 안내

국가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보훈의료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입니다.

보훈위탁병원 선정, 고려대련요양병원의 영광입니다.

독립과 민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진료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고려대련요양병원
GORYO DAERYEON MEDICAL CARE CENTER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련요양병원이 2026년 6월부터 국가보훈부 지정 '포항지역 보훈위탁 요양병원'으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포항 및 인근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이 멀리 있는 전문 보훈병원까지 이동하는 불편 없이, 우리 병원에서 편리하게 수준 높은 요양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과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훈위탁 요양병원의 개념과 주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보훈위탁 요양병원이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민간 요양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병원을 이용하시는 보훈 대상자분들은 국가로부터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지정은 우리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가 국가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결과입니다.

2. 주요 진료 대상자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이 주요 대상이며,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가족(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
(대상자별 자격에 따라 진료비 감면 비율 상이)

기타 보훈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부에서 규정한 의료지원 대상자

이번 위탁병원 지정은 우리 고려대련요양병원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동참하는 자랑스러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병원을 찾으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이 깊은 존중을 느끼며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늘 그러하셨듯 따뜻한 정성과 친절로 응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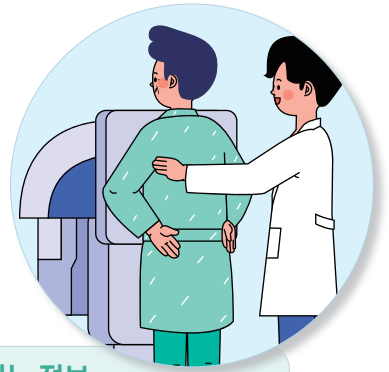
전략실 이준엽 상임이사

그날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손닥터의 투석실 이야기 '일곱 번째'

투석실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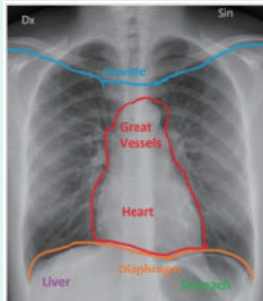
투석실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 엑스레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투석실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흉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건체중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이 촬영한 엑스레이를 못 보고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 간단히 설명을 듣게 되시거나 엑스레이를 보시더라도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한 장 촬영하는 것이지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크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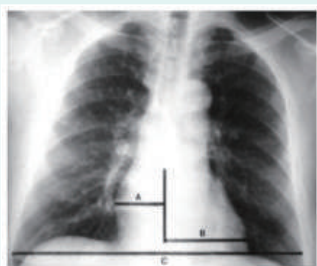
심장 크기의 변화를 보면 그 환자의 건체중이 잘 맞는지, 중요한 증거를 제시해줍니다. 심장은 흉부 엑스레이 중간에 세모 모양으로 불투명한 흰색으로 보입니다.



위에 heart로 적혀있는부위가 심장입니다

심장의 크기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눈으로 보고 짐작할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 정확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CT ratio(심흉곽비, Cardio-thoracic ratio)라는 수치를 구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전체 가슴 크기 중에 심장이 차지하는 크기가 몇 %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위 그림에서 A, B, C길이를 측정한 후 $(A+B) / C$ 로 구하면 정체 가슴 중 심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50% 이하여야 정상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심장이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에 기능이 떨어져있거나, 오랫동안 높은 혈압에 노출되어 심장이 커져있는 경우 (CT ratio 50% 이상)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과거 자신의 엑스레이와 비교하여 심장크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면, 건체중을 낮춰서 수분을 더 빼내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심장이 이전보다 작아졌다면, 건체중을 유지해도 되겠지만, 심장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면 건체중을 높여 체내 수분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65세 남자

최근 투석을 시작하신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



• 2020년 08월 사진

• 1달 뒤 사진

최근 투석을 시작하신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65세 남자이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까지 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투석을 시작하여 투석 카테터도 우측(사진의 왼편)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투석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CT ratio 52.8%)

왼쪽 사진은 최근에 혈압이 낮아 확인해 본 사진입니다.(CT ratio 47.7%)

눈으로 대강 보기에다 오른쪽 사진보다 왼쪽 사진의 심장 크기가 작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엑스레이를 확인 한 후 견체중을 조금 높여 안정적으로 투석 중에 있습니다.

폐부종 및 흉수 존재 유무



50대 남자

최근 이상하게 숨이 찬다고 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해 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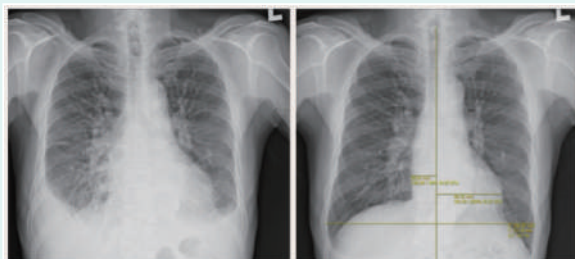


•과거 사진

•현재 사진

우측 과거 사진이고, 좌측 현재 사진입니다. 원래 양쪽 가슴 끝은 보족하게 끝나야 합니다. (우측 파란 화살표) 그런데 방금 찍은 사진에는 물이 차서 보족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흉수)

게다가 심장크기도 커져있고, (심대비) 폐에 전반적으로 물이 많아 보입니다. (폐부종) 그렇다고 해서 최근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체중 변화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자마자 응급실로 의뢰했습니다. 결국 이 분은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사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사진

이후 심장기능이 호전되어 폐부종, 심대비, 흉수가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폐렴이나 폐암의 존재 유무

투석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폐렴에도 취약합니다. 감기 증상이 지속되어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폐렴으로 고생했던 환자분들은 이 후에 감기증상이 생기면 폐렴인지 걱정된다며,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폐암의 경우 크기가 크면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나, 초기의 작은 폐암은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만 믿고 있으면 큰 일 납니다.

최근에는 초기 폐암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노출이 적은(대신 해상도가 좀 떨어짐) 저선량 폐CT 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늑골 골절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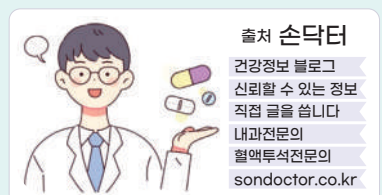
그 외에 갈비뼈(늑골)의 골절도 알 수 있습니다.



60대 남자분이고, 최근 우측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생겨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늑골 골절이 보입니다.

이미 아물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단순한 늑골 골절이면,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 없어 진통제만 드리고 경과를 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sondoctor

건강정보 블로그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직접 글을 씁니다

내과전문의

혈액투석전문의

sondoctor.co.kr

노인 암환자를 위한 요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각, 후각, 시각 등 감각이 둔해지면서 식사 시 느끼는 즐거움이 감소하고,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가 잘 맞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식사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위산분비 감소, 위 내 소화 시간 지연, 소장 내 효소 분비의 감소, 소화관 연동 운동의 저하 등에 따라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능력이 감소하여 영양 불량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암을 진단받게 되면 충분한 영양 섭취와 건강관리를 위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 홀로, 혹은 노부부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력 저하와 함께 식욕 저하가 흔하게 나타나며 이와 더불어 치아 상태의 불량, 위장 기능의 저하로 인해 거칠고 딱딱한 음식은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영지원실 영양팀 배소영 팀장



부드러운 닭고기찜



만드는 방법

1. 믹서기에 닭가슴살과 달걀흰자를 넣고 곱게 갈아준 후 소금, 후추로 간한다.
2. 수삼, 대추, 밤, 은행을 다진다.
3. 쿠킹호일에 닭가슴살을 넓게 펴고 준비한 수삼, 대추, 밤, 은행을 올리고 돌돌 말아준다.
4. 스팀이 오른 찜통이나 스팀오븐에 3을 넣고 15분 정도 익힌다.
5. 다 익은 닭가슴살은 쿠킹호일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다.

치아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딱딱한 닭가슴살을 믹서기에 갈아서 수삼, 대추, 은행 등을 다져 넣고 찜을 하면 기름이 적어 소화가 잘 된다.



재료

닭가슴살 80g / 수삼 10g / 대추 5g / 밤 5g / 은행 5g / 달걀흰자 3g / 소금, 후추 약간씩

떡갈비



만드는 방법

1. 볼에 다진 소고기, 다진 양파, 다진 파, 분량의 고기양념 재료를 넣고 치댄다.
2. 고기 반죽을 손으로 빚어 납작하게 만든다.
3.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센불에서 떡갈비를 앞뒤로 익힌 후 불을 줄여 속까지 익힌다.



재료

다진 소고기 80g / 다진 양파 20g / 다진 파 10g / 식용유 약간
고기양념 : 간장 10ml / 올리고당 4g / 설탕 2g / 맛술 2ml / 생강즙, 참기름 약간씩



고기는 필수아미노산, 철분이 풍부한 질 좋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질겨서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부드러운 떡갈비는 노인들이 섭취하기 좋은 단백질 메뉴이다.

인공지능(AI)과 우리의 삶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 같던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 집 안방과 주머니 속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다정하게 답하는 스마트폰, 내가 자주 보는 트로트 가수나 요리 영상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추천해 주는 유튜브 배경에는 모두 인공지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AI는 때로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 어쩌지?", "기계가 사람보다 똑똑해지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같은 막연한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AI는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똑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탁기나 냉장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리한 가전제품으로 쓰듯, AI 역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가장 진화한 도구'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AI 활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똑똑한 이웃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

1. 건강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비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워치(손목시계형 기기)에는 고도의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걸음 수를 재는 것을 넘어,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부정맥 위험을 경고하거나, 사용자가 갑자기 넘어졌을 때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자녀나 119에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당뇨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식사 사진을 찍기만 해도 AI가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앱을 통해 손쉽게 식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외로움을 달래고 안전을 지키는 말벗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적적함을 느끼는 중장년층에게 AI 스피커는 훌륭한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아리야, 나 심심해", "지니야, 신나는 노래 좀 틀어줘"라고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가구에 AI 스피커를 보급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평소와 달리 오랜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살려줘"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말하면 AI가 이를 감지해 복지사에게 알리는 등 실질적인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3.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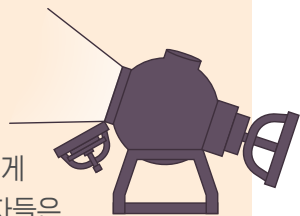
"이제 와서 내가 뭘 배우겠어"라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대화형 AI(챗GPT 등)는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 마치 카카오톡을 하듯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50대가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좋은 사업 아이템 5가지만 추천해 줘"라고 물어보세요. 며칠 밤낮을 고민해야 했을 법한 시장 분석과 기획안을 단 몇 초 만에 똑딱 만들어 줍니다. 자녀들의 결혼식 축하, 동창회 모임 인사말을 멋지게 쓰고 싶을 때도 AI에게 문장 교정을 부탁하면 아주 세련된 글귀를 완성해 줍니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늘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 운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분노했지만, 결국 자동차는 인류에게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처음 배울 때 마냥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익숙해지니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 편해진 것처럼 AI도 한 걸음만 다가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며 쌓아온 우리만의 '삶의 지혜와 연륜'에 AI라는 '똑똑한 도구'를 엮는 것입니다. 낯선 기술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분 좋은 호기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AI라는 똑똑한 이웃과 함께 더 풍요롭고 활기찬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뽕! 소리에 웃음꽃 피는 날, 따뜻한 가족 정 나누기



4월 15일 오후 1시, 본원 1층 로비와 야외정원에서 가족지킴이 프로그램인 "뽕! 소리에 웃음 꽃 피는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뽕튀기 기계에서 울려 퍼지는 경쾌한 소리와

고소한 냄새로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정겨운 옛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갓 튀겨낸 바삭한 뽕튀기와 옛날 과자를 나누며, 보호자가 어르신께 직접 간식을 챙겨드리는 등 깊고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야외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가족들은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며 함께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는 참여 소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짜장면 나눔과 음악 공연으로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 선사



4월 24일,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3층 강당에서 포항 한봉우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점심 대접과 다채로운 음악 봉사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봉사단과 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짜장면을 대접하였으며,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짜장면에 큰 만족과 기쁨을 표현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요, 품바, 라인댄스, 색소폰 연주 등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웃음과 활기 가득한 정서적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팀 정인옥 사회복지사



오물조물 카나페 만들기

6월 10일, 여가 프로그램으로 「오물조물 카나페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식빵 위에 딸기잼을 바르고 치즈, 햄, 바나나 등을 올려 자신만의 카나페를 정성껏 꾸며보았습니다. 처음 접하는 음식이라 "이름도 생소하고 처음 만들어 본다"며 신기해하셨고, 알록달록하게 완성된 카나페를 보며 "너무 예쁘다"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서로 감상한 후 맛있게 시식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소근육 활동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즐거운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대공감 행복 음악회, 아이들의 우쿨렐레 선물로 물들다

5월 14일 오후 3시,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2층 강당에서 달전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세대공감 행복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아이들은 오카리나와 리코더 합주, 활기찬 치어리딩, 그리고 감미로운 우쿨렐레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어르신들께 밝은 에너지를 선물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친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무대를 함께 즐기셨습니다.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과 아름다운 연주가 어우러진 이번 음악회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동 가득한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5월 8일 오전 10시, 고려시니어케어(달전타운) 야외정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행사의 막은 신명나는 장구 공연이 열렸습니다. 정원 가득 울려 퍼진 경쾌한 장단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흥겹게 고조 시켰습니다. 이어 고려시니어케어 전 직원이 무대에 올라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이 은혜'를 합창하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몇몇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으며, 서로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케어프로와 보호자 대표의 감사 편지 낭독이 이어질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이 전해지며 장내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더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깊고 힘 있는 판소리 공연이 큰 감동을 선사한 데 이어, 지역 초청 가수의

신나는 트로트 및 가요 메들리 무대가 더해져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각설이타령 공연이 펼쳐지자, 공연장은 큰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해지며 축제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정겨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보호자들은 식사 후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생활관을 둘러보며 생활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안심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T HCN 핫콘뉴스의 대표 프로그램인 '지금 우리 동네'에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의미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공감하며 어르신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한 행복한 어버이날 행사였습니다.

운영팀 차동찬 시설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KT HCN 방송 '지금 우리 동네' 출연



즉석 가족 사진



뷔페식사



축하합니다

친절직원 표창장 수여



요양팀
김 경 숙 케어프로

5월 6일 평소 어르신들의 돌봄에 헌신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실천한 직원에게 표창장과
더불어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포항시장 특별상 수상



물리치료팀
정 덕 분 팀장

5월 9일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포항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효(孝)를 나누는 감동의 시간, 어버이날 축제

5월 6일,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설렘 가득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바로 스마트한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 차수빈 씨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복지 공연을 펼치기 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차수빈 씨는 무대에 올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정한 인사와 함께 흥겨운 무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센터를 가득 채운 신나는 멜로디에 어르신들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노래를 목청껏 함께 따라 부르시고, 음악에 맞춰 힘차게 박수를 치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슴 따뜻한 노랫말과 흥겨운 리듬 속에서 어르신들과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지원팀 서영채 시설장



가수 차수빈 공연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송지연 요가 / 3GO / 하모닉스



송지연 강사 '요가'

6월 13일에는 두호동평생학습원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는 송지연 강사님을 모시고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에 맞는 요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다양한 동작들을 따라하며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을 움직이며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생활복지팀 김은성 사회복지사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활력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9일에는 3GO 자원봉사팀이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체조를 진행해 주셨으며, 5월 14일에는 하모닉스 공연팀이 아름다운 연주와 공연을 선보여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3GO자원봉사 '치매예방 체조'



통기타 동아리 '하모닉스 공연'

솔향 가득, 웃음 가득! 어르신들의 행복한 송도솔밭 나들이

6월 12일,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포항 송도솔밭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외부 활동은 어르신들께 야외에서의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활력을 높여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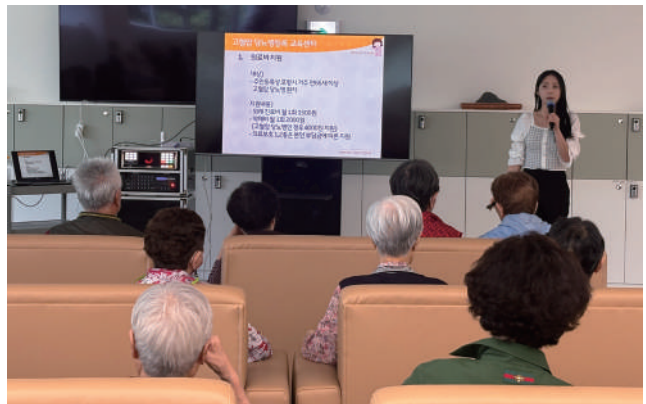
어르신들께서는 시원한 솔밭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김밥을 드시고, 다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만끽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웃음이 가득한 뜻깊은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연계 어르신 건강교육 진행



5월 22일, 포항시 북구보건소에서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예방 및 관리, 올바른 영양 섭취에 관한 건강 교육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는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링(Sling) 운동’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슬링(Sling)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슬링 운동은 흔들리는 줄(인장 스트랩)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안전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선진국형 맞춤 재활 운동입니다. 줄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체중으로 인한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평소 쓰지 않던 근육까지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슬링 운동의 대표적인 효과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탁월한 재활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한 근력 강화 무리한 무게를 들지 않고도 줄의 저항을 이용해 상·하체의 필수 근력을 안전하게 키워줍니다.

균형감각 향상 및 낙상 예방 흔들리는 줄 위에서 중심을 잡는 과정을 통해 신체 균형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발달하여, 일상생활 속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절 가동범위 유지 굳어지기 쉬운 어깨, 무릎, 고관절 등의 관절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무리 없이 즐겁게, 어르신 만족도 1등 프로그램!

슬링 운동은 전문 인력의 지도하에 어르신 개개인의 당일 컨디션과 신체 수행 능력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므로, 통증이나 부상 걱정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현재 우리 센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려데이케어센터(두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 전문 재활 프로그램인 ‘슬링(Sling) 운동’을 주 2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은 사랑이더라, 나의 하늘 나의 랑신에게



멈춰버린 시계, 무너진 나의 하늘

2019년 10월 25일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 없이 싱그러웠습니다. 남편은 여느 날처럼 관광버스 운전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간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상해... 빠꾸 기어(후진기어)가 안 들어가..."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오른손의 마비. 다음 날 급히 찾은 한의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쥐여주었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CT와 MRI를 찍으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결국 우리는 더 큰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졸중'. 하지만 하늘의 장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장까지 망가져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제 눈앞은 캄캄해졌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기 전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매일 밤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늘 같던 남편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늘 내 입에 먼저 넣어주던 사람, 영원히 함께 늙어가자고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니, 삶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만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발병 후 일주일만 지났을 때, 남편은 깊은 절망의 늪에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인생 포기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가자.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생을 마감하게 해줘." 그렇게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잊고,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남편은 저만 보면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픈 몸이 되어 아내에게 수발까지 들게 한다며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병원침상 위에서 우리는 신경계 물리치료와 투석을 병행하며 '다시 일어서겠다'는 피 끓는 투지를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당신, 나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눈물로 심은 소박한 꿈, 기적의 불씨가 되다

두 달 반이 지난 후, 급성기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운명처럼 '고려대원요양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 처음 이 병원의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편마비 상태였습니다. 오직 휠체어 하나에 온몸을 바쳐 의지한 채 무력하게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곳에서 투석과 재활, 한방 치료를 병행하며 3개월을 보냈지만, 야속하게도 몸은 쉽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남편을 덮쳤습니다. 남편은 고집을 부리며 다시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집에서 죽겠다"며 치료를 거부하는 남편을 붙잡고, 저는 그날 밤 침대 밑에 꿇어앉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마른 손을 가슴에 품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간절하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낫게해주세요. 다시 제 발로 걸을 수 있게만해주세요.'

빨리 나서서 이 사람 손잡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예순이 넘도록 아직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가슴속 깊은 소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아직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잖아... 당신이랑 비행기 타고 멀리 멋진 곳으로 관광 한번 가보는 게 내 평생 소박한 꿈이야. 나 그 꿈 좀 이루게 해줘, 제발..." 아내의 처절한 진심이 그의 가슴에 닿았던 걸까요, 아니면 밤새 울린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행히도 "집에 가자, 죽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던 재활의 불씨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4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봄

그날부터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우리 부부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석을 하는 날이면 남편은 온몸의 진이 다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는 매일 1시간씩 죽을 힘을 다해 한 발, 또 한 발을 내딛는 연습을 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죽을 힘을 다해 남편의 곁에서 함께 걸어주고, 응원하고, 보살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보낸 1,400여 일의 시간. 기적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전혀 말을 하지 못해 웅얼거리기만 하던 남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못 하던 다리에 힘이 생겨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한참을 걸을 수 있는 눈부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욕시키다가 남편의 발이 미끄러졌고, 쓰러지는 남편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받아내다가 그만 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환자가 둘'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지만, 남편의 간병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복대를 차고 진통제를 삼켜가며 내 치료와 남편의 간병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정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사무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터널을 지나온 지금, 병실 침대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남편의 표정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걸음걸이와 언어 소통도 이제는 꽤 많이 되는 편입니다.

삶은, 결국 '사랑'이더라

머나먼 여주에서 동생의 투병 소식을 듣고 매일 같이 전화해 기도와 위로를 건네 주는 남편의 누님과 자형은 우리 부부가 버틸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친자매처럼 지내게 된 카페주인장(이미정 선생님)은 남편을 '형부'라 부르며 지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곤 합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행복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이들과 음식을 나누고, 자식 걱정 같은 소소한 고민과 즐거운 소식을 서로 전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어느덧 62세의 나이까지 살아보니 참으로 모진 풍파와 여러 감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병원 침상 곁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삶은 사랑이더라." 서로를 끔찍이 위하고, 그 애뜻한 감정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고려대련요양병원 직원분들은 제게 남이 아니라 진짜 식구 같습니다. 늘 세심하게 환자를 살피 주시는 의사 선생님,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 간호해 주시는 2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남편의 굳어진 다리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투석실 식구들... 매일 아침 활기찬 체조로 아침을 열어 주시는 행정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병실에서 저마다의 아픔을 짊어진 채 하루를 눈물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환우분들과 간병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특히, 매일 재활치료실까지 남편의 이동을 도와 주시고 항상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동 도우미(김진식 선생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를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 눈물로 간병한 이 세월과,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함께 꽃피워 주신 모든 분께 이 글을 빌려 가슴 깊이 담아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제가 매일 밤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이상희



어버이날 맞이 '즉석 가족사진 촬영'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환우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뜻 깊은 '추억의 가족 기념촬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사진을 찍기 어려웠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 서른 팀 이상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날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서 즉석 인화하여 종이 액자에 담아 가족들에게 선물로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다 함께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실 줄 몰랐다"며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트로트 봉사단 병실 방문'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병실에서 적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위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은 친근한 밀짚모자를 쓰고, 어르신들이 평소 즐겨 들으시는 신나는 트로트 음악을 앞세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쿵짝쿵짝'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함께 이 방 저 방을 누비며, 어르신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추억의 옛 노래가 흘러나올 때는 저마다의 깊은 사연이 떠오르셨는지,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신나는 흥진영의 노래가 나오면, 어느새 수줍은 18세 소녀로 돌아간 듯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노래방 기계를 준비해 다시 찾아오겠다는 행복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늘 지금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는 고려대런 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권윤경 사회복지사



'사랑과 감동의 라디오 생방송 진행'

본원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평소 부모님께 전하지 못한 마음을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보호자님들께 부탁을 드려 정성스럽게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받아 280명의 환우와 150명의 직원들이 함께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아들딸의 목소리가 마음으로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영지원실 사회복지팀 김정예 사회복지사



4병동 410호 황연숙님께

사랑하는 부모님께

고향 마당에 뽕고 고운 작약꽃이 활짝 피어나는 이 계절이 되면,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더욱 애뜻하고 그리워집니다. 늘 감사함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저희 칠남매는 부모님께서 주신 값없는 사랑 덕분에 이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부모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헌신과 가르침 덕분입니다. 올해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가슴 깊은 은혜를 다시금 전하고자 이렇게 자식들의 마음을 모아 적어봅니다. 부모님, 저희를 길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해 주세요.

가족대표 권희림, 권은자 및 칠남매 올림

2병동 218호 최옥식님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의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펜을 듭니다. 평소 말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담아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멈춘 듯하면서도 또 묵묵히 흘러왔네요. 불편하신 몸으로도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견뎌내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들로서 마음이 저리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날들이 떠올라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머니, 저도 어느덧 환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토록 흘렀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어린 아들입니다. 어릴 적 제 손을 잡아 주시던 그 온기, 힘들 때마다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록 말씀이 없으시지만, 그 깊은 눈빛 하나로 제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나는 괜찮다, 잘 살고 있지?"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게는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 사랑을 다 감기에는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그래도 약속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오래 따뜻한 손 잡아드리며 어머니 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오늘날만큼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충분히 위대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롭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깊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올림

3병동 309호 김원자님께

엄마, 나 수정이

요 며칠 많이 힘들었지? 좋은 소식이었으면 더 힘이 났겠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시간인 것 같아. 이제는 아빠랑 우리 걱정 말고 그동안 못 챙겼던 엄마자신. 김원자만 생각하면서 엄마를 더 아끼자. 우리한테 줬던 그 사랑. 이제는 엄마 자신한테 그대로 주자.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가고 싶었던 곳, 하고 싶은 거 우리 다하자.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다시 건강한날이 올 거야. 아낌없는 사랑을 가르쳐준 엄마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로 잘 자라주고 있어. 고맙고 많이 사랑해 엄마.

장모님 감사방입니다.

많이 힘드신 데 내색 안하고 잘 참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꼭 나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빨리 나으셔서 여행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님 파이팅

할머니 안명, 나 슬비야.

항암 치료하느라 많이 힘들지? 자주 못 보고 전화도 자주 못해줘서 미안해.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 할머니는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내가 할머니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빨리 이겨내고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자. 사랑해 항상 고마워.

할머니 나 지안이야

할머니 그동안 항암 치료하느라 데 힘드는데도 나보면 맨날 웃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빨리 괜찮아지면 같이 여행도 가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고 싶어.

할머니 꼭 힘내서 빨리 회복해서 같이 놀러 가자

2병동 216호 하종권님께

사랑하는 부모님께 올리는 편지.

부모님께, 항상 저를 위해 애쓰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든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표현이 서툴러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늘 마음속 깊이 부모님의 은혜를 고맙게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포항 죽장면 하옥리 '나눔 의료봉사' 다녀왔습니다



한방치료



도수치료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지난 7월 2일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포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의료봉사는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입니다. 이날 봉사단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하옥리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침과 뜸 등 한방치료를 비롯해,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전문 물리치료(도수치료) 및 1:1 맞춤형 의료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교통편이 발달하고 차량 보유 가정이 늘면서 절대적인 의료 사각지대는 줄었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시내

병원을 오가기 번거로워 통증을 참고 지내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이번 봉사가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려대련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놓지 않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총무과 **황욱** 과장

신규직원 교육



본원은 지난 6월 10일 '제3차 신규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원은 연간 총 6회에 걸친 정기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이 병원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병원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행복 빵 나눔



본원은 연중 세 번 빵을 구워 환우들과 임직원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눔 빵은 바닐라, 라즈베리, 애플 크라운 파이입니다.

병원 로비가 하루 종일 구수한 빵 굽는 냄새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4월의 따스한 봄날, 벚꽃을 닮은 팝콘 600인분 나눔



4월의 따스한 봄기운 속에 고려대련요양병원 로비는 고소하고 달콤한 팝콘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병원은 환우와 방문객을 위해 600인분의 팝콘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병원 생활에 소소한 즐거움과 활력을 선사하였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툭툭 튀겨지는 팝콘 소리와 냄새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환자, 보호자, 병원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갓 튀겨낸 팝콘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 뜻밖의 선물에 행복해하는 보호자분들, 그리고 바쁜 일상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기검사
연 1 회

저수조 청소



4월 21일

정기검사
연 1 회

정화조 청소



5월 11일

정기검사
연 1 회

저수조 수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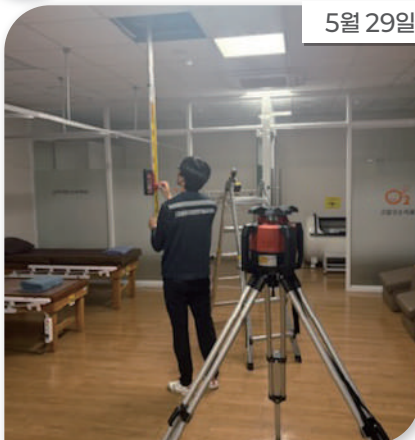
정기검사
연 1 회

정수기 수질검사



정기검사
3년 1 회

건축물종합정밀검사



5월 29일

정기훈련
연 4 회

합동 소방훈련 실시



6월 25일

이달의 친절직원

4월



시설관리과
박 준 현 과장

5월



시설관리과
이 미 정 사원

6월



영양팀
김 성 미 조리사



친절직원 게시판 소개

도수치료실 이 현 석 선생님

이 병원으로 올때는 요양병원이라 좀 꺼렸습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보니 깨끗하고 조용하고 도수치료 할 때 설명해가면서 하는데 무지아프긴 하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싹싹하고 또박또박하게 인사성도 양호 합니다.

다음에 남은 다리 수술하면

또 오고 싶습니다.

자기 직업이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수 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무과 이 현 혜 선생님

큰 눈망울로 성실히 컴퓨터 전산을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과 단 한번도 환자들의 진상에 짜증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며 친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영양팀 김 성 미 선생님

매사에 인사성이 밝고 친절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과 김 진 식 선생님

시설관리과 김진식님은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직원, 환자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도 잘해주시고 우리식당카도 잘 밀어주십니다. 항상 만나면 힘들죠? 란 말도 잘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일에 열심히 하시고 칭찬합니다.

영양팀 김 성 미 선생님

김성미씨는 조리팀의 조장으로 항상 친절히 같은 조리팀을 응원하고 가르쳐주고 분위기도 즐겁게 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친절, 배려, 동료애가 많으며 조리팀 전체를 잘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도 웃음과 친절을 많이 베풀며 병원전체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양팀 김 성 미 선생님

식당 김성미 여사님
인사성이 밝고 항상 친절하고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웃는얼굴로 맞이해 주십니다.

영양실 김 성 미 선생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밝은 얼굴에 친절한 미소로 환자와 직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러가면 저 멀리서도 "맛있게 많이 드세요." 란 매번 친절인사 항상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에 칭찬카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친절인사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병동 이 미 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모든이에게 너무 친절하고 편안하게 다정다감합니다. 항상얼굴의 미소가 있습니다. 몇 번 왔지만 언제나 이미자 선생님은 친절하고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직원 소개



4병동

유민주 간호사



4병동

김신희 간호조무사



QI팀

김영훈 간호사



감염관리실

정연주 간호사



재활센터

박정수 물리치료사



재활센터

차미경 작업치료사



집중치료실

정미혜 간호조무사



1병동

김지현 간호조무사



영양팀

김정연 영양사



영양팀

김수연 조리원



생활복지팀

최수진 사회복지사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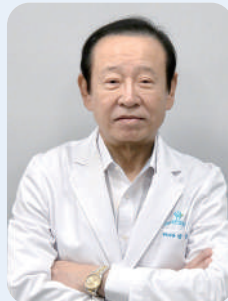


안광욱 병원장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중앙대학교 외래교수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 대구 효성병원 소아병원 병원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강홍일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울산 효림요양병원 투석실 진료원장
- 인천 뉴성민병원 응급실 진료과장
- 대구 한솔요양병원 투석실 진료원장
- 진운노인전문요양병원 진료원장
- 의정부 다우리내과 투석실 진료과장

진료분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예재명 진료과장

- 산부인과 전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신세계산부인과 원장
- 고려달전요양병원 진료과장
- 영덕효요양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노인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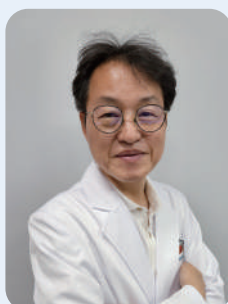


문덕홍 진료과장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춘해병원 부산대병원 신경과 전공의 수료
- 삼세한방병원부속 삼세의원 원장
- 동의대한방병원부속 동의의원 과장
- 조흔의원 원장
- 상록수요양병원 진료과장
- 고려대련요양병원 진료과장
- 위너스자연요양병원 진료원장

진료분야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오상향 진료과장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건양대학교병원 진료과장
- 홍성병원 진료과장
- 현대프라임요양병원 진료과장
- 보니파시오요양병원 진료과장
- 백세요양병원 진료과장
- 워크런병원 진료과장

진료분야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변영휘 한방과장

- 대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포항 이동한의원 원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한방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통증치료



이지형 한방과장

- 대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가창삼성요양병원 한방부원장
- 대한한방비만학회 정회원

진료분야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김운곤 한방과장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 여주 시애노요양병원 한방과장
- 강원원주 민중병원 한방과장
- 천안아산 녹십자요양병원 한방원장
- 용인 성북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김운곤한의원 대표원장
- 서울 성원당한의원 대표원장

진료분야

침구과, 한방 내과, 한방 재활의학과
노인허리 수술 후 하악, 한방 부인과

요양병원 입원대상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이 있는 자로
의학적 치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자

종류		치료대상	치료 및 프로그램	
노인 요양	입원	- 노인성 질환 어르신 - 만성기 질환 어르신	- 내과적 진료 및 치료 - 체계적인 식단 관리 - 전문재활 프로그램 - 사회복지 프로그램	
	외래	- 중추신경계 - 뇌졸중, 뇌손상 - 척수손상, 파킨슨병 - 근골격계 - 신경계 손상 - 신경마비 환자 - 수술 후 재활치료	- 뇌졸중 재활치료 -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 성인운동치료 - 성인작업치료 - 도수치료 - 통증치료	
항 암	외래	- 암 수술 전 체력관리 - 암 수술 후 회복관리 - 항암/방사선 병행관리 - 일상회복 후 지속적 관리 - 재발/전이방지 - 말기 암 환자	- 고주파 온열 치료* - 고압산소 치료 - 암 면역 치료	주 2~3회 정기적 치료
	입원 단기		- 고주파 온열 치료* - 고압 산소 치료 - 암 면역 치료 - 암 식이관리	2박 3일 내외
	입원 장기		- 고주파 온열 치료* - 고압 산소 치료 - 암 면역 치료 - 암 식이관리 - 힐링 프로그램	1달 이상 입원
투 석	외래	- 말기 신부전증 환자 - 부종이 심하거나 요독 증세가 심한 환자	첫 혈액 투석 치료 → 약 2시간부터 시작 이후 상태에 따라 증가함	월/수/금 화/목/토
	입원		보통 1회 4시간, 주 3회 시행	투석 실시

* 온코써미아(고주파온열치료기)는 국내외 주요 대학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로 경북 최초 2대 보유 요양병원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18-12

대표전화 054 - 241 - 1011

홈페이지 www.goryomcc.com

블 로 그 blog.naver.com/goryomcc

고려대련요양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외 래	의 사	진 료 분 야	진 료 요 일	
			오 전	오 후
재활의학과	오상향	뇌졸중 재활, 근골격 통증치료(척추 및 어깨관절, 무릎관절)	월~토	월~금
암케어	문덕홍	고주파온열암치료, 면역주사치료,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암재활치료	월~금	월~금
투석	강홍일	혈액투석, 일반내과, 당뇨·고혈압, 류마티스 내과	월~금	월~금
한방과	변영희	한방통증치료 및 재활, 뇌졸중 한방 침구과, 한방내과	월~금	월~금

• 재활의학과 토요일 진료는 격주로 진행되오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프리미엄 요양원으로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운영



[이용자격]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 판정 어르신
- 치매, 뇌졸중,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

[이용절차]

전화 혹은 방문상담 이후 입소 확정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대표전화 054 - 262 - 2022

홈페이지 www.goryoseniorcare.com

블 로 그 blog.naver.com/goryoscs



전국 최대규모의 주간보호센터
 송영, 식사, 운동재활, 인지재활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이용절차]

전화 혹은 방문상담 이후 등원 계약서 작성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127 2층

대표전화 054 - 246 - 3033

홈페이지 www.goryodcc.com

블 로 그 blog.naver.com/goryodcc